

실버 문화 복지 등 11개 사업 운영

서울노인복지센터 2012년 사업계획 발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012년 경로 급식을 개선하고 실버 문화인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21일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품격 급식 등을 포함한 11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기준 등록회원수가 5만 1800명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매일 20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명희 부관장은 "정부가 올해 예년보다 저렴한 가격에 쌀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며 "끼니당 500~600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관장은 "기존의 단체급식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식의 품격을 높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센터는 탐골문화예술학교를 통해 실버문화예술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대 300명을 대상으로 난타 연극 합창 마술 오카리나 등 10개 예술과목을 개설해 교육하고 실버문화공연단을 조직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라 그들의 욕

구와 문제에 부합하는 상담사업도 강화한다. 센터는 빈곤·건강·정서심리·가족·성 등 노인전문상담을 진행하며 집단프로그램인 '은퇴노인의 길 찾기'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우울감 개선과 노인 생애사를 상담할 계획이다.

끼니당 500~600원 더 투자

기존 단체급식 이미지 탈피

고품격 급식, 취업훈련, 세미나 등

노인복지정책 선구자로 나설 것

어르신에게 적합한 취업훈련 지종을 개발하고 고학력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계획도 마련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센터는 취업훈련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운영, 취업알선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버바리스타 훈련, 설문조사원 훈련 등을 진행한 센터는 노인 보험, 금융 관련 상품 상담사 등 12개 직종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카페 삼가연정은 사회적기업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어르신들에게 고품격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인증을 위한 서류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시 고령자기업으로 선정된 '담리서치'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기 위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센터는 '노인의 성(性)과 사랑'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연구·실천하는 노인복지자를 구현한다.

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공간을 특성화한다. 1층은 갤러리, 도서관, 전문영화

관으로 2층은 사회교육프로그램실, 그리고 3층은 공연장과 방송국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청원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사업방향을 통해 한국노인복지에 어떤 마인드를 제시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주요사업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선 스님, 대오 스님(중앙종회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성웅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단에게 '복지'는 큰 화두이자 숙제다. 사회복지사 48만명 시대에 복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이 제1부 법회 주최로서는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자부

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 소외계층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겸손해 하지 말고 당당히 알렸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제2부 행사에서 62개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자원봉사단의 화합을 도모하는 봉사팀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신입봉사팀장은 32명으로 각 팀의 조정자이자 재단과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21일 63빌딩에서 '청소년 내 꿈 찾기 의미나눔 4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파티에, 학예연구사, 가드너, 공연설비기사, 토끼어리강사 등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을 만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다

이은 기자

이천불교聯, 장애우들 위해 쌀 전달

이천시불교연합회(회장 혜봉, 이하 연합회) 32개 사찰의 스님·불자들이 '승가원 장애우 돕기' 행사를 통해 모은 쌀 1408kg와 후원금 125만원을 2월 17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전달했다.

이천시불교연합회 회장 혜봉 스님은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장애우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쌀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매년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모은 기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은 "이천시불교연합회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다. 전달해 준 쌀과 후원금은 장애우들을 위해 잘 쓰겠다"고 답했다.

이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출·재가 함께 불교대중화 노력’

포교원·중앙신도회, '신도임원교육, 재가불자 신년법회' 봉행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2012년 한 해 전국 교구 및 사찰 신도회 활성화에 주력한다. 중앙신도회는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도임원교육, 재가불자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201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신도회 조직체계를 재정비 해 신도회 권리와 의무관계 및 대의성을 확립하고, 단체등록 및 소속단체 교류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교구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구신도회 및 단체 창립 지원 사업 ▷고승대덕 수행처 순례단 조직사업의 공동시행으로 전국 조직망 구축 ▷총회에서 교구 및 단체의 대의원 개선 ▷교구신도회 연수교육과 창립교육사업 주관 ▷권역별 지역 간담회 진행 ▷신도시 포교거점 확대 ▷교구신도회 사무소 설치 및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에는 신도등록을 30만명으로 증가시키고, 신도멤버십 활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불교 세계화와 구호사업을 확대하고, 불자 생활실천 운동 전개 및 신도교육 수행안 등을 개발·보급해 신행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최근 불거진 범어사의 불법선거 의혹 등 불교계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참회하고 불교계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중단을 어지럽게 하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배격할 것 ▷교리나 계율 논쟁이 아닌 세속적 사관의 시비를 주장하면서 파당을 형성하는 개인·단체에 대해 부화뇌동하지 않을 것 ▷독신·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언행을 함부로 해 불교계를 욕먹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이 존경받고 주류가 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 ▷자성과 쇄신으로 5대 결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 ▷

중단의 각종 선거에 돈봉투 살포행위를 규탄하고 관련 스님은 산문출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결의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범어에서 "중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와 더불어 재가불자 신행혁신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신도 임원들은 새로운 불자들을 이끌고, 이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신도회는 재가불자 신년법회에서 제24대 후반기 회장단 임명식을 진행했다. 선임직 부회장단에는 수석부회장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김성림 불심홍법원 이사, 상임부회장에 손안식 전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으며, 임명직 부회장단에는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장 외 8명이 임명됐다.

한편, 포교원은 4월 7일 2012년 포교결집대회를 겸해 '국민안기원 1만인 계몽산 등반대회'를 봉행한다. 이은정 기자

지구촌공생회, 국내 저소득 지원나서

100가구에 결연 및 후원...2010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본격화



지구촌공생회(이사장·월주 스님 사진 왼쪽)가 저소득 가정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불교계 대표적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국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2월 22일 영화사 설법전에서 저소득 가정 결연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은 조계종 영화사

와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지구촌공생회는 2010년부터 광진구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후원금 연 3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월주 스님과 자경 스님, 김기동 광진구청장, 권택기 새누리당 광진구 국회의원, 광진구청 불자모임 반야법우회

민정기 회장과 영화사 신도 150여 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국가의 원로이자 불교계 큰 어른인 월주 스님이 광진구에 계시면서 어려운 이웃을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해의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영화사 주지 평중 스님의 제안으로 국내 홀몸 어르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자비가 부처님이고 사랑이 하느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해외원조사법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은 공생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청과 연계해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철·팔순 잔치 한마당, 송년잔치, 어르신 나들이를 매년 지원하는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점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점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승인동 76번지 롯데캐슬 4 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